



신안 퍼플섬, 특별한 성공사례로 연구 중

한국의 섬 정책 관련 논문과 책을 훑어보던 중 신안 ‘퍼플섬(반월-박지도)’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된 리아웨이 씨는 퍼플섬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관광지로 거듭나게 된 과정이 궁금해 본격적인 연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퍼플섬은 이른바 컬러마케팅을 통해 섬 부활을 일군 첫 사례로 최근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 수원 화성 야간 관광 등과 함께 ‘2021 한국 관광의 별’에 올랐습니다. 또한 문체부-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의 100대 관광지’이자, 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 마을입니다.

리아웨이씨는 박사 논문에 포함할 한 가지 주제로 퍼플섬을 선정해 사례분석하였고, 이 내용을 2022년 11월 중국에서 열린 학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12월에 신안에서 열린 2022세계섬문화다양성포럼에도 참석해 해당 주제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리아웨이씨가 특히 주목한 것은 퍼플섬의 브랜드화 과정입니다.

“퍼플섬이 어떤 정책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떠오를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퍼플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세한 정책들, 즉 복지 및 시설개선, 쓰레기 처리 방법, 여행 가이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려고 노력했고, 홍보와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퍼플섬은 모든 노력이 맞아 잘 맞아떨어진 성공사례로 다른 섬에서도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세미나와 포럼으로 한·중 간 교류 늘기를

한국섬진흥원은 2022년 12월 일본 국제교류협력 방문을 통해 하치조지마 등의 섬 지자체와, 연구기관인 일본이도센터를 방문해 섬 발전 교류를 위한 양국간의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중국과의 섬 교류도 물꼬를 틀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리아웨이 씨는 해양 분야 학술세미나 및 포럼 개최로 연구자나 행정관계자 간의 정보 교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에도 섬진흥원과 같은 섬 전문기관인 중국해도센터가 있는데, 이런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 지자체끼리의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양 분야 학술회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나라의 해양 분야 학술회 몇 곳에 참석하면서 한국 섬에 관련된 연구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관련 학술회나 포럼이 보다 많이 개최되었으면 좋겠고 풍부한 연구 자료를 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국 섬 체험의 새로운 기회, 한섬원아카데미

리아웨이 씨는 2022년 12월 8기 수강생으로 한섬원아카데미를 수료했습니다. 8기 아카데미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경남 통영 일대에서 섬 정책 관련 강의, 섬 여행 및 사람들 강의, 욕지도 트레킹, 욕지도 주민 현장 강연, 퍼실리테이터 기법 활용 교육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담당 교수님의 추천으로 아카데미에 참여했다는 리아웨이 씨는 실제 섬에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한섬원아카데미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프로그램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섬 주민의 생생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섬 현황에 대해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현장감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가 공부와 연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한섬원아카데미 전문반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기준을 세분화해서 운영한다면 교육 프로그램도 더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섬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이 되기를

리아웨이 씨는 학생이자 연구자로서 한섬원아카데미에 이어 한국섬진흥원에 대해 바라는 점도 전했습니다. 한국의 해양이나 섬 관련 데이터가 각 기관이나 보고서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하면서도 일정기간마다 업데이트해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춘 기관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연구자들이 현장 조사를 다닐 때 섬 현지 주민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기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신뢰성 있는 해양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준다면 관련 연구자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현장 조사는 필수적인 사항인데 섬진흥원이 섬 주민과 연구자 간에 소통의 통로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외국인은 현지 주민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운데 섬진흥원이 이런 점을 도와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머지않은 미래에 대학교수나 연구원 혹은 공무원으로 일하며 한·중 간의 해양정책교류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리아웨이 씨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또 한국섬진흥원과 인연도 계속되기를 바라 봅니다.

